

종합

■F1대회 수입 얼마나 올릴까?

KAVO, 입장료 등 742억 예상

(F1대회 운영법인)

VIP 판매 수입 등 대부분 F1매니지먼트 몫
개최국엔 막대한 경제·문화 파급효과 기대

오는 10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영암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코리아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리아 그랑프리를 통한 카보의 자체수입은 약 74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장료 수입 ▲스폰서 수입 ▲부스 판매 ▲의류·완구 등 기념품 판매 수입 ▲TV중계권 등 자체수입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전문학적 수익이 발생한다는 F1대회의 수입치고는 다소 적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F1대회의 독특한 수익구조 때문이다.

F1대회 개최국은 일반입장권 수익을 확보하는 대신 VIP들의 별도 관람석인 패독 판매 수익을 비롯해 나머지 수입의 대부분은 F1대회의 모든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가져가게 된다. 코리아 F1대회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상수입 742억원 중 입장권 판매수입이 564억원으로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입장권의 경우 공식 판매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티켓 발매 행사에 참여한 대

기업들만 70곳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구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장권 판매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기업부스 수입 89억원, 스폰서 수입 58억원, 기념품 판매 수입 3억원, TV중계권료 29억원 등으로 채워

진다. 이 가운데 스폰서사의 경우 수입의 25~5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FOM에 제공한 뒤 약 58억원을 자체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스탠드 상단에 설치돼 '스카 이박스'라고 불리는 관람석은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데 15~17인용 박스 약 60여개를 설치, 약 89억원의 수익을 낼 계획이다.

TV중계권은 카보가 FOM으로부터 국내 방송중계권을 사들여 국내 방송사에 되파는 것으로, 약 28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산정됐다.

이처럼 입장권 외에는 대회 개최국의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매년 여러 국가에서 F1대회를 개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직·간접적 경제·문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타당성 분석에서 7년 개최 시 생산유발효과가 1조8000억원이나 됐고 고용유발효과도 1만7994명으로 나왔으며 국가 이미지·신인도 제고와 전방지역의 SOC확충, 경주장 주변의 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김지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해 해상기동훈련 일까지 다섯날 실시된다.

서해 합동 해상기동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서해상 훈련구역 내에서 대잠 탐지 및 공격 훈련을 펼치고 있다. 작전 중인 대천함에서 여러가 투하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오는 9

광주시 문화관광공사 설립 재검토

市 "수익창출 어렵다" 보류키로

광주시가 민선 5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문화관광공사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뚜렷한 수익모델 없이 설립될 경우, 운영비를 광주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일,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

을 전담할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수익창출의 어려움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화관광공사 설립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왔으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는데, 충분한 수익모델없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행정·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 수익

모델 창출 후 공사 설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공사 설립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을 통합하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장 문화관광공사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사업 모델을 찾는 뒤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인구밀도 1km²당 2893명 전국 세번째

서울은 전남의 117배

경제·문화 중심지인 수도 서울로 일 자리를 찾는 인구가 몰려들면서 올해 서울의 인구 밀도는 전남의 117배, 광주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추계인구로 살펴본 올해 광주의 인구밀도는 1km²당 2893명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았다.

전남은 1km²당 142명으로 강원(87명), 경북(136명)과 함께 인구밀도가 낮은 곳으로 꼽혔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km²당 1만6586명이었으며 부산(4497명), 광주(2893명), 대전

(2806명), 대구(2750명), 인천(2591명)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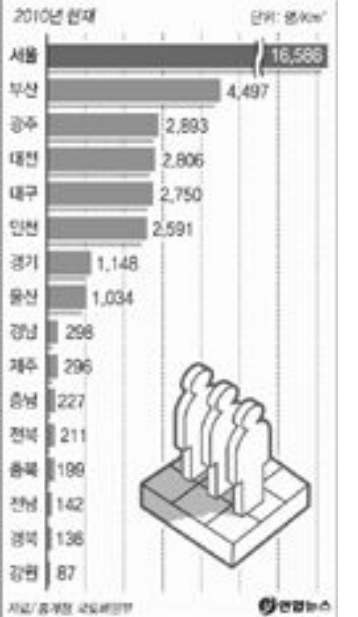
서울의 경우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지만 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3만명이나 된다.

광주는 인구밀도가 ▲2006년 2879명 ▲2007년 2883명 ▲2008년 2887명 ▲2009년 289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전남의 인구밀도는 2004년 1km²당 156명까지 이르렀으나 ▲2005년 153명 ▲2006년 151명 ▲2007년 149명 ▲2008년 146명 ▲2009년 144명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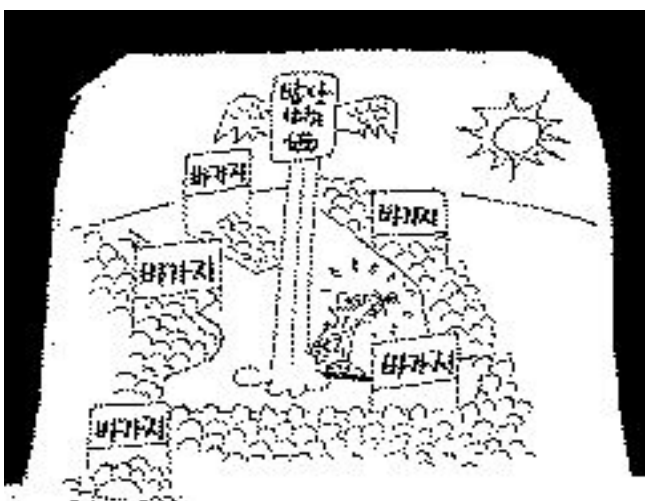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내 인구밀도 현황



빛의만평

- 김중두



'진서민'은 눈썹고 찾아도 없다

하남산단 9번도로~광산 나들목
진입로 6차로로 확장 개통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이하 하남산단) 9번 도로~광산 나들목 간 하남산단 진입로 700m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오는 9일 개통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말 흑석사거리~하남산단 6번 도로 2.5km 구간과 2009년 초 하남산단 6번 도로~9번 도로까지 1.6km를 포함해 4.8km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혀졌다.

광주시는 이로 인해 그동안 노푼이 좁아 대형 물류 수송차량의 상습 정체를 빚어온 하남산단 진입로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산단 내 기업들

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입로 확장공사에는 모두 264억원이 투입됐으며, 광주시는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초 준공하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개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은 하남산단 주변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흑석사거리~광산 나들목까지 6차로로 연결돼 첨단과 수완지구 등 인근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민 5년 전과 비교해보니

수면·TV 시청 ↑ 여가·공부시간 ↓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5년 전에 비해 수면과 TV 시청은 증가한 반면에 식사나 여가생활, 공부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호남지역 생활시간 활용 모습'에 따르면 먹고 자는 필수생활시간은 광주가 10시간 40분, 전남이 10시간 44분으로 5년 전보다 각각 11분, 9분이 증가했다.

반면 일이나 가사노동, 학습 등의 무생활동 시간은 광주와 전남 모두

8시간으로 2004년보다 각각 10분과 3분이 감소했으며, 여가생활시간도 광주가 5시간 20분, 전남이 5시간 15분으로 2분, 6분씩 줄어 들었다.

지난해 광주주민은 7시간 56분간 잠을 자고, 1시간 34분간 식사를 했으며 외도 가꾸기 등 건강관리를 하는데는 1시간 11분을 썼다.

여가시간에는 1시간58분간 TV 시청을 했으며 독서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는 50분을, 종교 및 스포

츠 활동에는 43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민들은 지난해 8시간4분 동안 잠을 잤으며, 3시간 27분간 일을 하고 2시간 15분간 TV 시청을 했으며 바깥에는 1시간 32분을 사용했다.

또 8분동안 책을 봤으며 1시간 10분간 공부를 했으며 이동하는데 1시간 32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생활에서 TV 보는 시간은 여자가 2시간 3분으로 남자(1시간 52분)보다 11분 더 많이 사용했고 스포츠 활동 시간은 남자(35분)가 여자(28분)보다 12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6기) 8월13일(금) 14:00-17:00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모텔·양구장·노래방·사무실·약국 등에 납품하는 손님접대용 음료 공장도가로 판매 실시!